

## 계 열 문 항 1

## &lt;가&gt;

비슷한 자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 못지않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평등한 사물은 모두 동일한 척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영혼에 바라는 것만큼 선한 것을 받기를 바라기 마련이라면, 똑같은 본성을 지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심할 여지없이 존재하는 비슷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욕망의 일부분이라도 만족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욕망에 어긋난 것을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다면, 내게 그럴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해를 가하면 나 역시 고통을 당할 것을 상호 간에 예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배려를 그들이 내게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나와 평등한 사람으로부터 되도록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는 그들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만큼을 충분히 베풀어야 한다는 자연적인 의무를 내게 부과한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베푸는 배려를 동일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것을 과하게 행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연의 이성은 우리들 자신 및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인 그들 간의 평등한 관계에 따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두었다.

<존 로크(John Locke), 『통치론』 중에서>

## &lt;나&gt;

종차별주의(種差別主義, speciesism)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인종차별주의(人種差別主義, racism)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의의 핵심은 종차별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설령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인간에게 인간 아닌 존재를 착취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과 저술가들은 이런저런 형태의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기본적인 도덕 원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만이 이러한 원리가 우리 자신 외의 다른 종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벤담은 이를 감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구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간 아닌 동물들이 폭군의 손이 아닌 이상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사실이 “괴롭히는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입게 된 피해를 아무런 보상 없이 방치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깨닫고 있다. 언젠가는 다리의 숫자, 피부가 털로 뒤덮였는지의 여부, 또는 꼬리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 그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배려되어야 하는가를 정할 수 있을까? 이성 능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 또는 생후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능력이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위의 구절에서 벤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어떤 존재가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언어 능력 또는 고차원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특징이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고려함으로써 그 존재들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을 배려해야 한다.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 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가슴속에서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실어 나른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며,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들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 조랑말과 인간은 모두가 하나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 카누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우리는 연못 위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한낮의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내음을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는 것이기에 공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숨결을 나누고 산다.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첫 숨결을 베풀어주었던 바람은 그의 마지막 한 숨결도 받아주었다. 바람은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준다. 땅은 우리 어머니이기에, 땅 위에 닦친 일은 그 땅의 아들들에게도 닦칠 것이니, 우리가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자연은 인간과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가하는 행동은 곧 그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1. <가>, <나>, <다>의 공통점을 찾고,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이 <가>와 변별되는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000±100자)

## 계 열 문 항 2

## &lt;가&gt;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였는데, 그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이후 서구 정치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극적 자유란 외부 강제에의 부재다. 즉,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소극적 자유의 의미와 내용이 드러난다. 이는 외부의 강제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타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상태이다. 한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박탈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내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만큼 자유롭다고 여긴다. 즉, 개인은 불간섭의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것이다. 타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더욱 많은 선택과 기회가 가능하므로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노예는 자신의 영역에서 극히 제한을 받거나 강제를 받는다.

적극적 자유란 “한 사람에게 이것 말고 저것을 하게끔, 이런 사람 말고 저런 사람이 되게끔 결정할 수 있는 통제와 간섭의 근원이 누구 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이 드러난다. 적극적 자유란 자신이 자신에 대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자신의 본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소원에 뿌리를 둔다. 나는 내 인생 및 결정이 나 자신에 의하여 좌우되기를 바라지, 어떤 종류가 되었건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나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싶어 한다. 소극적 자유가 ‘~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적극적 자유는 ‘~로의 자유’이다.

## &lt;나&gt;

자유를 행위자에게 주어진 형식적인 선택지의 범위로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행위자가 그 자유를 달성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지 않다는 것과 행위자가 실제로 그 문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서, 외적 간섭의 부재는 행위자가 그 선택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걷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실제로 이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이동을 돕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며, 장기실업자가 실제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간섭의 부재로서의 자유’와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을 구별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의 조건이 매우 불평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외부 개입의 부재는 자유의 조건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이나 획득된 자원을 자유로 전환하는 능력에서 평등하지 않다. 동일한 자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가령 심신장애나 병의 유무 등에 따라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는 역량, 즉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장애나 질병 등 남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 &lt;다&gt;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저 장애인을 배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이 그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라는 요구와도 같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자원 분배를 평등하게 한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라면, 계단이 10개 있는 회사에 장애인이 다니게 되었을 때 동료 직원들이 그 장애인을 번쩍 안거나 업어서 사무실까지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편의 제공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은 ‘정당

한 편의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 방식은 장애인을 사무실로 들어가게는 하지만, 그가 휠체어를 자기 몸의 일부로, 일종의 '스타일'로 삼아 오랜 기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 운동은 '이동권'을 공식적 법적 개념으로 만들어냈고,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왔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이 자신의 몸과 정신적 특성, 독특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 맞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배제되는 무수히 많은 '잘못된 삶'들이 스스로 자기 존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결핍을 '수용'하는 윤리적 결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존엄을 서서히 확고하게 각인시켜왔다.

2. <가>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